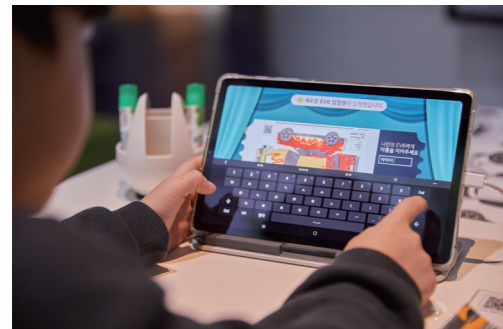


“  
환경 문제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발견하는 체험 전시  
”



친환경 에너지 활용으로  
자연을 보호하다

「EV6와 함께하는 그린랜드(이하 그린랜드)」는 고양어린이박물관과 기아(株)가 함께 만든 환경 체험 전시관이다. 전시관은 자연환경 보호를 주제로 ‘EV6 공작소’, ‘고릴라 아지트’, ‘바다상어 놀이터’, ‘숲 속 우리집’, ‘펭귄마을 친구들’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됐다. 고양어린이박물관은 전시 개편을 추진하면서 어린이들이 상상하는 자연 속 모습을 실사화하고, 환경 문제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발견하고 탐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함께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입구에 들어서면 ‘EV6 공작소’가 눈에 띈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나란히 앉아 자동차 도안을 색칠하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화면으로 도안을 전송하면 스크린에 자동차가 등장한다. 도안으로 자동차를 접어 머리띠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아늑한 아지트처럼 꾸며진 ‘숲 속 우리집’에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동물 친구들의  
아픔에 공감하다

단순히 흥미만을 위한 전시가 아니다.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아파하는 자연을 공감하도록 하며, 환경보호를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는다. ‘바다상어 놀이터’에서는 낚싯대로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올려 바다에 사는 상어들을 구하고, ‘고릴라 아지트’에서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집과 먹이가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 학습한다. 또, 동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을 익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러 체험공간 가운데 단연 인기가 높은 곳은 ‘펭귄마을 친구들’이다. 어린이들이 이글루처럼 생긴 공간에 조성된 트램펄린 위를 뛰면, 펭귄마을에 눈이 내린다. 자신이 만들어낸 친환경 전기에너지가 지구 온난화로 사라져가는 펭귄의 서식처인 남극을 지킬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다.

어린이의 오감 발달부터 환경보호 실천까지 체험 가능한 전시 ‘그린랜드’는 앞으로 2년간 탐험할 수 있다. 향후 콘텐츠 업그레이드도 예정되어 있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환경보호를 배울 수 있는 기획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랜드 관람을 원한다면 고양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전시 관람권을 예매하면 된다.



Mini Interview



강희정·김태연 모녀(주엽동)

아이가 고양어린이박물관을 좋아해서 종종 이곳을 방문해요. 이전에도 2층 상설전시관에서 환경 관련 전시를 보곤 했는데, 이번에 새로 개편하면서 체험 거리가 더욱더 다양해졌어요. 교육적인 주제와 체험이 함께 있어 유익합니다.



권효진·정지원 모녀(서울 수색동)

친언니가 고양특례시에 살아 평소에 자주 와요. 고양어린이박물관을 추천받아 방문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보고 체험할 거리가 무척 많네요.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환경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